

■ 주요 경기 결과

‘전차군단’ 16강 확정적

올리버 뇌빌 결승골 2승 조 1위...폴란드 2패 탈락 위기

■ 독일-폴란드 (1-0)

‘전차군단’ 독일이 ‘유럽관 한·일전’인 속적 폴란드와 맞대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올리버 뇌빌의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독일은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도르트문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인저리타임이 적용

되던 후반 46분 다비트 오토코어가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뇌빌이 달려들며 오른발슛으로 골문을 갈라 1-0으로 이겼다.

지난 10일 대회 개막전에서 코스타리카를 4-2로 완파했던 독일은 2연승으로 조 1위를 지키며 16강행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고, 에콰도르와 첫 경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던(0-2 패) 폴란드는 2연패에 빠져 16강 진출이 힘들어졌다.

독일은 폴란드와 역대 전적에서도 11승4무,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5일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튀니지의 지아드 자지리가 첫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우디 ‘아쉬운 무승부’

■ 사우디-튀니지 (2-2)

사우디아라비아가 북아프리카의 강호 튀니지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5일(한국시간) 뮌헨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H조 조별리그 튀니지와와의 1차전에서 2-1로 앞선 후반 인저리타임에 동점골을 허용해 2-2 무승부가 됐다. 이로써 승점 1점씩을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니지는 20일 각각 우크라이나, 스페인과 2차전을 갖게 됐다.

선취골은 튀니지가 뽑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친 한 판이었다. 튀니지는 전반 23분 사우디 진영 좌측에서 프리킥으로 올린 볼이 사우디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흘러 나오자 지아드 자지리가 시저슛으로 골대를 갈라 1-0으로 앞섰다.

후반들어 총공세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는 야세르 사이드 알 카타니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동점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사우디는 후반 39분 역습에 나서 말레크 무아스가 논스톤으로 찔러준 볼을 잡은 노장 사이 알 자베르가 튀니지 골키퍼 알리 불니젤과 1대 1로 맞선 상황에서 회심의 역전골을 성공시켜 2-1로 뒤집었다.

그러나 사우디는 마지막 인저리 타임을 견디지 못하고 땅을 쳤다. 막판 반격에 나선 튀니지는 자지리가 크로스를 라디 자이디가 헤딩슛을 성공시켜 극적으로 2-2 무승부를 만들었다.

튀니지는 이 경기에서 4명이나 경고를 당해 2차전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페인 무섭게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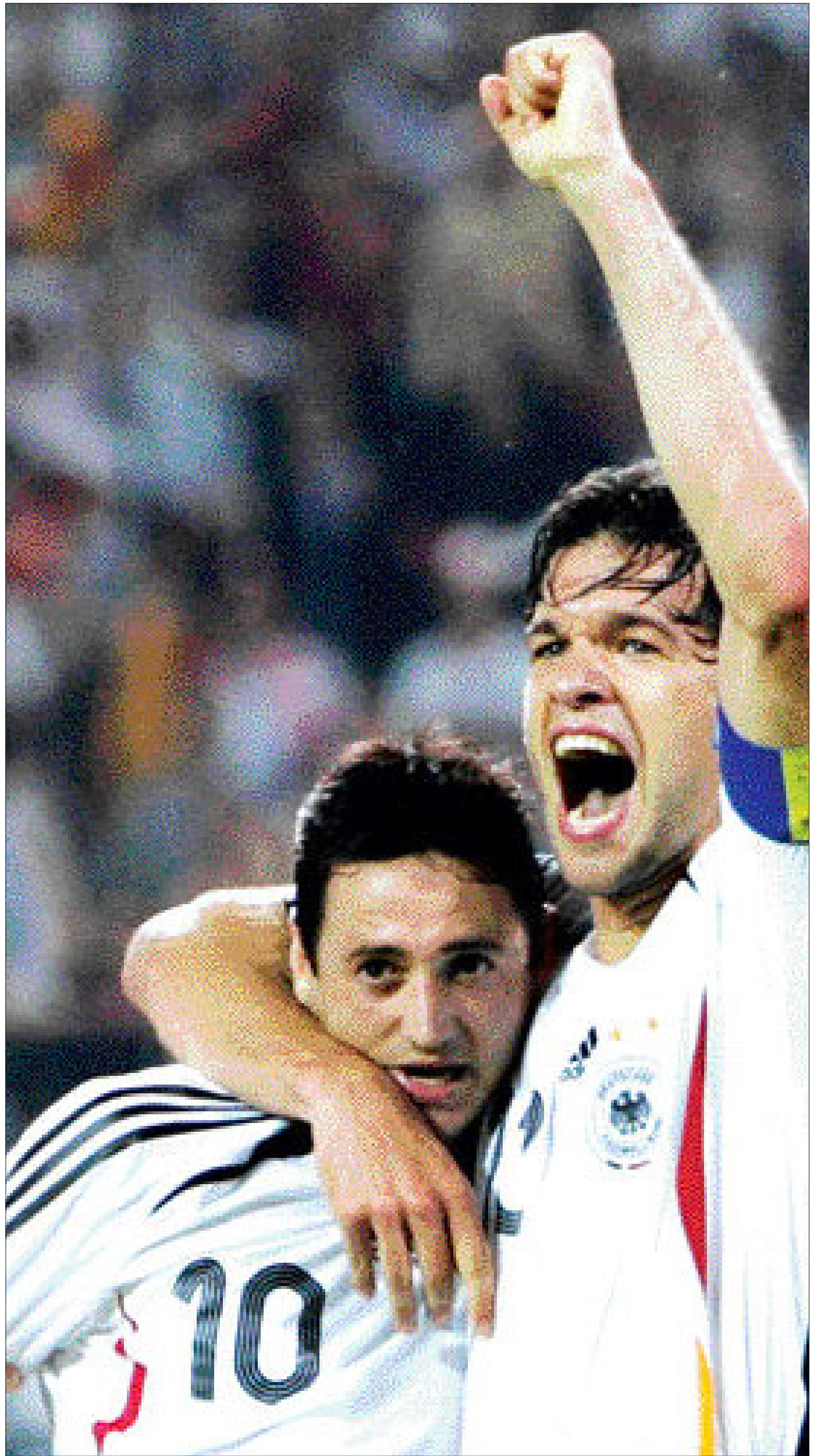
■ 스페인-우크라이나 (4-0)

짧은 피를 수혈한 ‘무적 함대’ 스페인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스페인은 지난 14일 밤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첫 경기인 ‘동유럽의 북방’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막강 화력과 미드필더진의 강한 압박, 촘촘한 수비망을 앞세워 4-0 대승을 냈다. 지금까지 열린 조별리그 17경기 중 최다 점수 차 승리.

우크라이나는 부상에서 회복한 ‘독점 기계’ 안드리 셉첸코(첼시)가 선발 출격하면서 맞대결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게 사실. 유럽 3대 리그인 프리메리가를 보유하고도 지난 1950년 브라질 대회 4위에 오른 게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고 2002 한·일 월드컵 8강에서 승부차기 대결을 벌인 한국에 제물이 됐던 초라한 모습과 달라진 풍경이다.

스페인의 이런 괄목상대는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의 세대교체 노력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레알마드리드가 키워낸 세계 정상급 공격수 라울을 빼고 대신 25세의 다비트 비야(발렌시아)를 선발 출장시켰다.

라울이 무릎 부상을 여파로 100% 컨디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지만 무적 함대의 정신적 지주인 라울의 제외는 자칫 팬들의 비난을 살 수 있는 모험이었다. 월드컵 유럽 예선 때 4경기에 라울 백업 멤버로 교체 출전해 1골을 뽑는 데 그쳤던 비야는 기대에 부응하며 전반 14분 프리킥과 후반 3분 페널티킥을 잇따라 성공시켜 승리를 주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5일 열린 폴란드전에서 독일의 올리버 뇌빌의 골이 터진후 팀 동료 미하엘 발라크(오른쪽)가 뇌빌을 껴안은채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비트 비야 (스페인)

■ BEST & WORST

안드리 셉첸코 (우크라이나)

라울 대신 선발 출장 2골 성공 ‘새 해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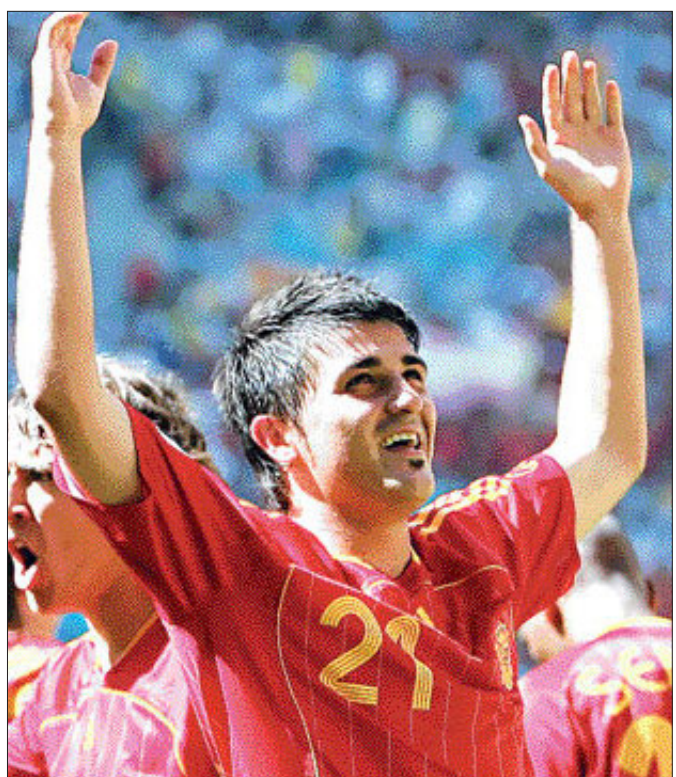
▲다비트 비야 (스페인 공격수)

스페인의 젊은 공격수 다비트 비야(25·발렌시아)가 독일월드컵 축구에서 ‘무적함대’에 우승컵을 안길 해결사로 떠올랐다.

비야는 14일(한국시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H조 1차전에 선발로 나와 2골을 터뜨려 스페인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팀이 1-0으로 앞섰던 전반 17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강한 프리킥을 때려 우크라이나의 골문을 갈랐고 후반 3분에는 페르난도 토레스가 얻은 페널티킥으로 침착하게 두번째 골을 만들었다.

공격수로 비교적 단신(175cm)인 비야는 이날 55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정확한 슈팅과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 그리고 폭발적인 돌파력을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의 두터운 신임으로 베테랑 골잡이 라울 곤살레스(28.레알 마드리드) 대신 선발출장한 역할을 100% 이상 해낸 것이다.

비야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가에서 2005-2006 시즌에 25골을 터뜨려 득점 2위에 오르는 불운은 골잡이들을 괴시했다.



상대 수비에 철저히 막혀 ‘특급 골잡이’ 체면 구겨

▲안드리 셉첸코(우크라이나 공격수)

‘독점기계’ 안드리 셉첸코(30·첼시)의 월드컵 본선 데뷔전은 실망스러웠다.

셉첸코는 14일(한국시간) 독일월드컵 본선 H조 스페인과 경기에서 기대했던 첫 골을 넣기는 커녕 경기 내내 상대 수비수에 막혀 제대로 볼을 건드려 보지도 못했다.

2000년과 2004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득점왕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도 호나우두, 아드리아누(이상 브라질), 티에리 앙리(프랑스) 등과 함께 골든슈의 주인공이 될 후보로 꼽혀 온 특급 골잡이로서 체면을 구겼다.

지난 달 초 이탈리아 프로리그에서 뛰다가 무릎을 다친 후유증 탓인지 민첩한 몸놀림을 보여주지 못했고 스페인 수비에 공공 류인 팀 동료들로부터 불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어려웠다.

또 팀의 주장으로 월드컵 본선에 처음 오른 우크라이나가 0-4로 뼈아픈 패배를 당해 아쉬움은 더했다.